

[온누리회복축제] 주제강의5 – 섹스 & 사랑 중독

셋째날 | 회복 | Archibald Hart / 2005 / 페이지수: 3

솔직히 한국의 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한국에서도 성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 예상합니다. 앞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며, 이 문제와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수년 전에 성 문제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동성애, 아동 성학대 등이 사회의 이슈가 된 지 오래입니다.

침묵하기엔 너무도 심각한

성 문제와 정당하게 싸우기 위해서는 성에 대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 문제가 현대의 모든 중독 중 가장 시급하고 위험한 중독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중 대부분이 남성에 대한 것이고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둘째, 자녀들이 왜곡된 성 문화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현대의 성 문화는 특별히 여성과 어린이가 주요 피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교회가 성 문제에 대해 너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성도들의 생활을 살펴보다가 우리 생활과 성 문제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 딸과 함께 여성의 성 문제에 대해 연구를 해서 ‘이브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발간했을 때입니다. 책이 나오자마자 신문사에서 앞다투어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인터뷰 중 여성 기자 한 명이 제 딸에게 “어떻게 아버지와 성 문제에 대해 조사할 수 있었나?”라고 질문했습니다. 사회에서 아버지와 딸이 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워왔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야기할 때와 같이 아이들에게도 성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성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하다면 성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 문제를 이야기해서 자녀들이 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아 바르게 보호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성적 순결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 문제에 있어서도 해답을 줍니다. 현대 사회와는 시간상 먼 일이지만 사회가 시작할 때부터 성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8절에서 알 수 있습

니다. 바울은 이 말씀이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먼저 말한 후에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죽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려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바울은 성적 순결함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성적 순결은 여러분의 영성처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성들에게 영적으로 시험하는 부분은 성입니다. 현대 사회가 성에 있어서 상당히 잘못되어 있고 성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해결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성 중독이라는 국한된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도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성 중독은 성 문제 전체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성들은 보통 성적으로 남성들보다는 건전합니다. 여성들이 성에 있어서 남자들의 성 왜곡 문제와 악영향의 정도가 비슷한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낭만적 사랑 중독’입니다. 곁으로 보기에는 남성들의 성 문제만큼 심각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피해가 큽니다. 남성들은 포르노그래피의 영향으로 성 중독에 빠집니다. 반면 여성들은 본성적으로 낭만적인 사랑에 잘 빠집니다. 낭만적 사랑 중독 때문에 살인, 스토킹 같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10살에 성인이 되는 아이들

성 중독과 낭만적 사랑 중독의 몇 가지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춘기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춘기 연령이 몇 살까지 어려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100년~150년 전에는 17~18세부터 사춘기였고 제가 10대 때는 13~14세로 어려졌습니다. 요즘은 10~11세에 사춘기가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아이인 어린이들이 스스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0대 아이들에게도 콘돔의 사용을 권하는 방식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형을 가지고 노는 10~11세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의 책임감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사춘기 연령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우리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사춘기 연령이 8~9세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사춘기 연령이 낮아진 반면 결혼을 통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나이는 20대 후반으로 늦어졌습니다. 20년이 넘는 상당히 긴 시간동안 부모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성교육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춘기부터 결혼 전까지 성에 대한 충동이 심하기 때문에 성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성적 충동을 발산

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 문제를 요약하는 단어는 ‘충동’입니다. 낭만적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만적 사랑 역시 신경증적인 감정을 동반합니다. 저는 낭만적 사랑을 단기 정신 분열증으로 봅니다. 사랑은 늘 낭만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을 수 있겠지만 낭만적 사랑을 넘어 진실한 사랑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교육과 솔직한 대화 필요

교회에서 성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 성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 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은 두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뇌가 성에 대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에 있어서는 관계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혹은 아내를 내 신체의 일부처럼 가까운 존재가 되게 하는 관계가 성의 순수한 모습입니다. 결혼을 벗어난 성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인 성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교계에서 성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탈색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성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에 대해 아이들과 진솔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눠 본 성 중독 환자들 중에는 성에 대해서 부모와 솔직한 대화를 해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성 중독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정리 최문경 기자pink1969@onnuri.or.kr

* 출처 : 온누리신문